우암학원 창학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051호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음력 6월 27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신규 발전사업 금지…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발목

시설용량 한계 주장… 9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 위해
전력수요 19% 도심태양광 필요
"발전 위한 공공부지 확보 총력"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정부와 한국전력에 발목이 잡혔다.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전력 수요의 19%를 도심 태양광으로 수급해야 하는데, 오는 31일 이후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7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시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합동회의를 갖고 8월31일 이후부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 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7년4개월여 동안 호남에서는 어떤 재생에너지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년째 태양광의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전남북은 그렇다치더라도 광주의 경우 시내 17개의 변전소 여유용량이 2GW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의견 수렴없이 곧바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비판이 나온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광주다.

광주시는 한전의 이번 발표가 있기 바로 한달 전인 4월 2033년까지 3조643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 2030년 40%보다 강화된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142만 광주시민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도록 계획돼 있다. 즉 재생에너지로 현재 7%대의 전력자급률을 51%까지 끌어올리되, 나머지 49%의 전력은 전남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45년까지 광주시 전력수요의 19%를 도심 태양광이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1.2GW 규모의 햇빛발전소가 설치돼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2년 말 기준 320MW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가 금지되면서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담당 부서 전 직원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부서 전체가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업 신청 불가시점까지는 최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전 부원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신청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태도가 아주 완강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부지 확보나 신규 사업 신청이 부진할 경우 사업이 정지된 7년간 부지 확보를 계속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자가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진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현재 급한 것은 산자부에서 제시한 8월31일까지 계통연계 신청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 부지사용 승락을 받는 일일 것"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산자부에 '분산에너지특구'를 신청, 마을재생 에너지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공공배달앱 활성화 현장간담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현성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 홍진호 신한은행 땡겨요 팀장, 공공배달앱 이용 소비자 및 가맹점 관계자들이 31일 광산구의 한 공공배달앱 가맹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긴급 점검 및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건호 기자**

화순군청 임애지, 8강행… 女 복싱 최초 메달 노린다

헤수스 샤가스에 4-1 판정승
내일 콜롬비아 선수와 격돌

화순군청 임애지가 두 번째 도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첫 번째 도전이었던 2021년 도쿄 대회에서는 8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이번 대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메달을 노리고 있다.

임애지는 31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급(플라이급) 16강에서 타티아나 레지나 드 헤수스 샤가스(브라질)를 상대로 4-1 판정승을 거뒀다.

임애지는 1라운드 초반부터 치고 빠지는 경기 운영으로 착실하게 점수를 쌓았다. 헤수스 샤가스가 카운터 펀치를 노렸으나 임애지가 발 빠른 움직임으로 회피했고, 이 흐름은 2라운드까지 이어졌다. 헤수스 샤가스는 3라운드 들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저돌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임애지가 침착하게 견제에 성공하며 경기를 마쳤다. 결국 심판 다섯 명 중 네 명이 30-27로 임애지의 손을 들어줬고, 단 한 명의 심판만 27-30으로 헤수스 샤가스의 손을 들어주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임애지(화순군청)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2024 파리 올림픽 54㎏급 16강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임애지는 2일 오전 4시4분 열리는 8강에서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를 상대한다. 아리아스 카스타네다는 2번 시드를 받은 강자다.

임애지가 아리아스 카스타네다를 꺾을 경우 최소 동메달을 확보한다. 만약 동메달을 확보할 경우 이는 한국 여자 복싱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 된다. 한국 복싱으로서는 2012년 한순철 이후 12년 만의 메달이다.

임애지는 경기를 마친 뒤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지만 8강을 위해 다시 보완하겠다"며 "상대 선수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복기했다. 이어 "올림픽은 누구를 만나도 쉽지 않은 무대다. 8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8강도 꼭 중계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복싱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탑환경건설·(주)탑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탑환경건설 (주)탑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